

교회소식

1부 예배를 2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10:40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성서학당 이후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 예배 후 12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 집회는 없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2일(화) 오전 10시 효창교회에
서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5월 1일에 열립니다. 이웃
과 나눌 가정용품, 의류,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초록가게에 기증해 주세요.

새싹, 꽃, 새순. 작고 어린 생명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그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목상해보십시오.

막 2:1-12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김영희 윤성중 최철수 한상균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혜령 박소현 이수정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오늘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유아부 중고등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7여선교회

떡 대 접 : 정원석 김현영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부활절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느덧 2 주기가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단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철 따라 피었다 지는 꽃 처럼 선거철에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이고 사라지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충직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요17:11 인도자

♣ 교 독 문 40. 시편 96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형숙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299.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 성경봉독 삿 9:7-16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II. 박영신 집사
..... 봉독자
..... 다 함께

2부찬양 내 주님 가신 길 찬양대

말씀 가시나무 그늘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국지연 권미정 김광일 이부용 김문주 김영희 김재환 김진선 김주영
김주희 김태정 김현주 김혜영a 김해진 김훈동 김유경 김문복 김민지 김박기
박상규 신연화 박숙미 박시내 방민준 오민용 백요현 백의경 서수진 서정순
실규범 성유경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오민용 이은석 이인웅 오송경 이종현
김민화 이순용 김신실 이우상 이계월 이응림 장혜정 정두리 정민경 정진호
최혜경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이백혜 장의림 장혜옥 최종원 하현철 하성애
양순임 조관행 홍선희 임조문 규진 정영현 주은진 최옥자 최종원 최원순
한기택 한상균 한상의 정영선 허명선 현진 홍춘 황경순 황원순 황원순

감사헌금

강금분 김재흥 최희영 김해선 문복순 박미연 박미희 방문성 박해경 석순심
신진식 변혜정 안효정 윤석철 장혜숙 윤여민 임보람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임광호 정연경 최양선 홍윤선 무명20

생일감사헌금

문홍일 이미혜 박준민 최민기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향자 임설희 임선양 신현숙 무명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쉽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쉽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김진경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안정숙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배삼순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송양진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일찍 피는 꽃들

일찍 맺힌 산당화 꽃망울을 보다가
 신호등을 놓친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는 영화의원 앞
 신호등을 제때 건너지 못한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어떤 기운에 취해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듯하다
 언젠가는 찾아 해낼 수많은 길들이
 등 뒤에서 사라진 듯하다
 서슴없이 등져버린 것들이
 기억 속에서 앓고 있는 곳
 꽃망울이 기포처럼 어린 나를 뚫게 하던 곳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꽃나무 어딘가에 있는 듯
 나는 신호등을 놓치며
 자꾸 뒤를 돌아본다

- 조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60여선교회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가시나무와 같은 불의한 권세에 굴복하며 살지 마십시오. 가시나무의 그늘에서 벗어나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불의한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로지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 성서 학당 동교회	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박범희 권사

4월	1부 영접위원	박미영 권미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형숙 김민화 한상경 정연희
	2부 헌금위원	한완식 박성실

언제나 4월 15일

- 세월호 희생자 이준우 학생의 어머니 장순복 씨 이야기 -

... 회사 사람들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세월호에 대해 많이 물어봐요. 특별법은 어떻게 됐냐는등 연예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해요. 나는 '4월 16일'이 아닌 사람이라고, 다 물어두고 왔다고 말해요.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도 느껴지고... 일을 하는데 힐끗힐끗 쳐다봐요. 재가 왜 울지 않지, 재가 왜 당당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금 11월인데 나는 여전히 4월 15일인 거예요. 회사에 다니려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니까 언제나 4월 15일인 거죠. 일하면서 중심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애기가 보고 싶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회사 사람들이 나하고 있을 때랑 아날 때랑 시선이 달라요.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넌 괜찮니?'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처음에 출근해서 제가 준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준우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쳐다봐요. 우리 준우가 어때서, 준우가 없을 뿐이지 준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모습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동안 준우 이야기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준우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해요. 준우가 봄에 갔는데 벌써 가을이예요. 수능 보는 사람도 있고, 고3 올라간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준우 또래의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질 테고...

아니면 이쁜 얘기를 낳아서 키워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이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자꾸 메모를 해놓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땠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요. 다음에 다시 겪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할 수 있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유가족들 안됐잖아요. 나만 안 된 게 아니라 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편히 잘 수가 없고 ... 꿈속에서도 준우를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는 게, 어떨 때는 살아 있는 모습만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 같고. 팽목항에서 준우 상태를 직접 못 봐서 그런가, 무인도 같은 데서 살아 있을 것도 같고...

사건 나고 친정 엄마도 힘들어하세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제 바다를 어떻게 보냐고. 제가 완도에서 태어나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섬에서 살았거든요. 태준이도 중2인데 저한테 자기가 공부할 필요 없다고, 열심히 살아도 허망할 거 같다고 말해요. 자긴 영어문제 푸는 데 오래 걸리는데 형은 영어 단어 5분이면 100개를 외울 정도로 잘났었는데, 그런 형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공부는 왜 하느냐고, 아빠도 회사 다니며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고 멍멍 호령했었는데 지금 저리 됐지 않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내 마음을 자꾸자꾸 키워가려고 해요. 처음보다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아직 어디 가서 외식하는 건 싫지만 언젠가 적응할 때가 오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본지가 오래됐다고들 해요. 사고 나고 친척들 빼고 못 만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마음이 편해지면 보자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만 봐주면 좋겠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자, 어디 밥 먹으러 갈래, 그러는데 그게 아직 낯설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일 년이 될지 이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준우한테로 빠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준우가 뭐 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 준우는 이런 말을 했었지' 하면서 한 번 더 웃게 되고 울게 되는...